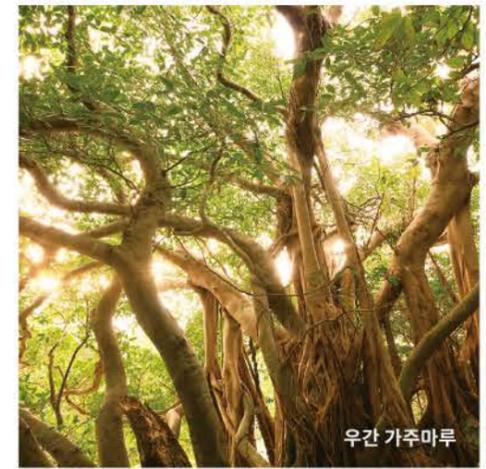


# 태고로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이야기.



우간 가주마루

## 안바루의 숲

일본 최대급의 아열대 조엽수림이 펼쳐지는 안바루는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이 다양하게 존재해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자연의 보고입니다. 류큐 열도는 대륙과 분리 및 결합을 반복해왔고 이때 살아남은 생물들이 수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유종으로 각각 진화한 것입니다.

다이세키린잔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'안바루 국립공원' 내 특별 보호구역에 있습니다.



## 원시의 산



2억 5천만 년 전의 고생대에 바닷속에서 형성된 석회암이 지각변동으로 지표에 나타나게 된 다이세키린잔. 아울러 수백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용식 및 침식되어 깎아지른 거친 기암들이 즐비한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. 오키나와 본섬의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이곳에 자리했던 산. 현재도 빗물과 박테리아의 미미한 작용으로 석회암이 용식되어 가는 모습을 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다이세키린잔은 세계 최북단에 위치하는 열대 카르스트지형. 돌리네(절구 모양의 웅덩이), 타워 카르스트(타워 모양의 석회암 대지), 피너클(탑 모양의 석회암 언덕), 카렌(바위 표면의 비늘 모양의 홈) 등 카르스트의 다양한 특징이 다채롭게 존재합니다.



소철 군락

## 아득한 저편에 있는 나라



추라우미 전망대 스테이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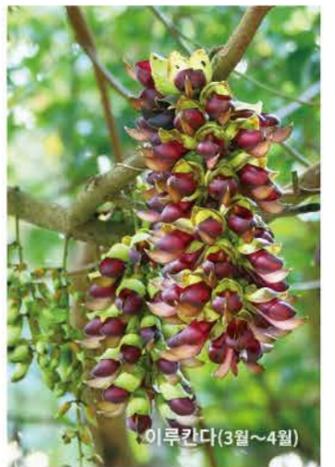
헤도곶에서 바라보는 다이세키린잔

'아시무이'라는 4개가 이어진 바위산에 있는 다이세키린잔. 정상에 올라가면 수평선 너머로 요콘섬과 오키노에라부섬이 보입니다.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득한 저편에서도 보이는 이 웅대한 바위산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신천지를 찾아 떠날 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.

지금도 40개가 넘는 우간주(참배소)가 있는 아시무이. 이곳은 17세기에 편찬된 류큐 최초의 역사서 '중산세감'에 창시의 시조신 아마미키요가 최초로 만든 성지라고 쓰여 있습니다. 또한 12~17 세기에 류큐 조정이 편찬한 오키나와에서 가장 오래된 가요집 '오모로스시'에는 아시무이의 용천수가 왕의 생령으로 왕가의 정수를 기원하는 정화수로 사용되었다고 율고 있습니다. 숲에는 시시가키라는 돌담과 가족 움막으로 보이는 석조물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. 또한 산기슭에 조은 시대에서부터 아요이 시대의 마을터 유적 '우자하마 유적'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선사시대, 사람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.



류큐 로빈 (국가 지정 천연기념물)



이루칸다(3월~4월)



아가리메

시시가키

가족우리터



넴비 연못

